

»»» 고유가, 고사료시대 농가 생존전략

자조금 활성화로 양계산업 발전유도

동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계란생산비의 48.8%, 육계생산비의 54.8%가 사료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료비가 양계업의 채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계사료의 원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옥수수과 소맥, 대두박 등을 포함한 사료곡물이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사료곡물의 수급은 양계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2007년에 접어들면서 배합사료용 원료인 국제 곡물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원유(原油)값의 폭등은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연계되면서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2007년 이후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양계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치명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유가격이 단기에 낮아질 조짐도 거의 없는 상태다. 과거의 곡물수급은 해당 연도의 농산물 풍흉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등락현상을 보여 왔으나,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수급불안정 현상은 곡물의 근본적인 수요구조 변화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즉,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비롯한 곡물의 주요 생



박 종 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산 및 수출국들이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료의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가의 옥수수를 공급해오던 중국에서도 자국 내 수요가 증가되면서 옥수수의 해외수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가격 또한 산유국의 생산제한과 투기세력이 영합하면서 매일 사상 최고의 가격을 갈아 치우고 있는 실정이며, 오랫동안 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이어 급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 김제 양계농장을 필두로 방역망에 구멍을 보이면서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33건이 발생하였고 닭과 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다. 지난 6월 29일 AI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되었으나, AI의 발생원이나 감염경로조차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AI의 발생농가의 엄청난 피해는 물론 소비자의 양계산물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양계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경험이다.

그러나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고언과 같이 오늘의 어려움을 양계농가가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야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유가, 고곡물가격의 어려움은 우리나라 양계농가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모든 국가의 양계농가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료비를 포함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양계산물(계란과 닭고기)이 소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계산물의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소비자가 그 가격을 치루고 우선적으로 선택해 준다면 양계산업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1.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그렇다면 국내산 양계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받아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그 주요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양계 생산물(products)을 생산·공급해야한다. 식품선택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성이다. 건강과 안전성을 지향하는 소비자를 항상 안심(安心)시킬 수 있는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계란과 계육을 생산·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보완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일, 항생제 급여를 최소화하는 일, 농장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 자가 도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체계(HACCP 등)를 수립·시행하는 일, 계란과 계육의 포장을 다양화하고, 계란과 계육을 원료로 이용하는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계란과 닭고기의 합리적인 가격(price) 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유통(place=distribution)을 투명화해야 한다. 농가단위에

서 아무리 안전하고 깨끗한 계란과 육계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전략이 농가의 수익증대와 연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를 개선위해서는 농가와 상인간의 계란 거래 시에 거래 교섭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공익기관의 거래기준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공익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육계의 경우에는 계열주체와 계열농가간의 상시적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합리적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과 계육의 유통을 위해 계란과 계육의 냉장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계란 집하장을 확충하는 일, 자체검사원제도에 의한 닭고기에 대한 검사를 공영화하는 일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촉진(promo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아무리 안전한 양질의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고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모르면 찾지 않는다. 양계농가가 양계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일이 양계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양계산물의 소비촉진활동은 양계경영의 충분조건이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가 백색육(white meat)인 닭고기의 선호현상이다. 건강성을 추구하는 많은 소비자가 적색육(red meat)보다는 백색육을 선호하고, 그로인해 닭고기의 소비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직도 백색육보다는 적색육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연하다. 여기에는 닭고기에 대한 소비·홍보의 부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다양한 이점과 요리 및 섭취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양계산업이 추구해야할 필연적인 과제이다.

2. 자조금의 활성화로 불황 타계

그런데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며, 이 비용을 축산물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양계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면, 그 공동조성액이 바로 양계자조금(계란 또는 육계자조금)이다. 이러한 자조금은 일반적인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납세를 의무화하는 비자율적인 비용인 반면에 자조금은 특정 산업의 구성원들이 그들 산업을 스스로 보호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과·부담하여 조성하는 자율적인 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계자조금은 계란과 육계를 생산하는 양계농가들이 개인적으로나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



업 즉, 양계산물의 소비홍보, 새로운 양계산물 제품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계란과 계육의 소비촉진활동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계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구적인 자금인 것이다.

한편 자조금의 납부는 자칫 농가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소액의 비용부담으로 그 부담액을 크게 사회하는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계란과 계육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양계농가들이 부담한 자조금을 이용하여 계란과 계육에 대한 소비촉진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란과 계육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된다면, 단

기적으로는 계란과 계육의 시장공급량이 일정 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생산 및 공급증대와 더불어 가격안정(상승)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으로서 농가의 수익이 생산증대 및 가격상승 부분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수요증대가 전제되지 않는 공급증가는 가격하락만을 자초할 뿐이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계자조금제도의 조기 도입과 실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고언을 세기면서 우리 양계농가들이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양계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